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 성교육

손영주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433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사회교육원

3.7
4맞

00004339

00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 성교육

여성사회교육원

주 소:서울·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글쓴이:손영주

그린이:이은홍

발행일:1993. 12. 25

찍은곳:동방기획

성인 교육 10월

유도성 학습

머릿말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를 들여다 보고 있으면 찌뿌둥했던 머리가 맑아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새롭게 솟구쳐 오름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때론 어른들을 거둬나게 하는 요술거울이라고 하나보다.

그러나 어른들이 조장해 놓은 말초적이고 퇴폐적인 성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맑고 순수한 상태이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런 문제인식 하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자녀 성문제를 중심으로 쓰고자 하였으나, 일반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성적 특징의 차이성이 명확하게 두드러지지 않아

제 1부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기본 이해

탁아소, 유치원 등 집단적 놀이공간에서 보여지는 아이들의 성적 특징이나 놀이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실는 형식으로 집필하였다.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올바른 성인식이 필히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자녀성교육을 위한 기본 이해도 함께 실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띌겠지만, 그래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리라 믿고 부족한 이 글이 올바른 자녀 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더 늦기 전에 퇴색해가는 우리 아이들의 '동심찾기'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1993. 12. 25

글 쓴 이

머릿말

제1부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기본 이해

성이란 무엇인가? 7

동물적 성에서 인간적 성으로 8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진다 11

병든 성문화의 현실 15

병든 성문화 극복을 위하여 19

제2부 올바른 자녀 성교육

유아기 성교육 25

아동기 성교육 33

학동기 성교육 48

실패하지 않는 자녀성교육을 위하여 62

천주 올유도성 특권을 부! 1

제1부 천주 올유도성 특권을 부! 1



성이란 무엇인가?

사람들 대부분이 '성' 하면 곧 육체적인 성행위를 떠올리지만 성이 전부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식물에도 암수가 있듯이 인간 역시 태어날 때부터 남자 아니면 여자로 구별되어 태어나는데 이것부터가 성인 것이다. 또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으로 표현되는 여성성과 남성성도 성범주에 들어가며 더 넓게는 생명탄생의 신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기 중심이나 성행위로만 이해하려는 협소한 성인식을 벗어나 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가치관, 문화 그리고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사회, 문화적 소산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될 때 인간의 성은 넉넉하고 따뜻한 성으로 자리잡혀나갈 것이다.

동물적 성에서 인간적 성으로

두발로 걷기 전의 원시인류는 털없는 원숭이의 모습을 하고 주어진 자연환경에 자신을 내맡긴 채 생존하였다.

그러나 두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두발로 서게 된 인간은 자유로워진 두손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채집하거나 동물을 사냥할 때 도구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간은 수렵, 채집의 자연의존 노동에서 벗어나 생산적 노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직립을 하게 된 인간은 네발로 걷는 동물들의 두뇌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 즉 커지는 두뇌크기를 직립으로 곧추세워진 척추가 감당할 수 있게 되자 인간은 보다 효과적인 도구와 노동방식 등을 개발하게 되어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인류사회 또한 크게 진일보하게 되었다.

직립으로 인한 변화는 인간의 성에 있어서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교미를 통해 번식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임신가능 기간인 배란기를 전후하여 몇일간의 발정기를 갖게 되는데 이 때에 암컷은 발정기를 알리는 암내를 풍기거나 성기주변의 색깔을 변화시켜 섹스 스킨(교미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표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평상시와 다른



특이한 행동 변화 등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발정기가 끝나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발정기때 보 여지던 탐욕스러운 교미행위와 광란에 가까운 성욕은 말끔 히 사라져 다음 발정기까지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다. 당시의 원시인류도 역시 예외는 아니여서 종족보존을 위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발정기, 즉 자연스러운 성적 본 능에 의해서 성행위를 하는 정도였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동물에게는 발정기가 남아 있는데 왜 인간에게서만 유독 이 발정기가 사라졌을까?

인간이 두발로 서서 걷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인간의 성 은 서서히 동물적 발정기로부터 해방되게 된다. 즉 그 이전

까지는 뒤에서 밖에 할 수 없었던 동물적 성체위가 똑바로 서게 됨으로써 사라지고 서로 마주보는 성체위로 변하게 된 것이다. 마주보는 성체위는 ‘서로 쳐다보고’, ‘서로 만져보고’,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인간의 성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또한 종족보존을 위한 주기적 성행위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상화된 인간의 성은 차츰씩 자라나는 사랑의 감정과 점차 커지는 대뇌에 의해 조절당하면서 종족보존을 위한 본능적 성과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생식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만 성행위를 하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차츰 생식과 관계없이도 성행위를 원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의 의사로도 어쩔 수 없는 통제하기 어려운 본능적 욕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목적의식적 영역으로 진화해 왔고, 사랑이란 감정과 결합됨으로써 인간의 성은 완성되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고, 성적 활동과 생식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진다

‘남자는 적극적이고 여자는 소극적이다,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요구한다. 왜 우리는 남녀의 성행동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실제로 남자, 여자가 어느정도는 다르기도 할 것은 왜일까?

미드(Mead)의 자아형성단계에 따르면 아이들은 만 1세에는 무조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고 4~5세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누구를 모방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캐치(Katcher)와 콜버그(Kohlberg)도 유아가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라고 불러주고 옷이나 장난감을 선택해주고 머리모양 등을 분리하여 선택해 주는 것을 통해 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보면 아이들은 자신과 남을 구별하고 자신이 모방하는 타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인식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성을 외부환경, 주로 주변 어른들로부터 주입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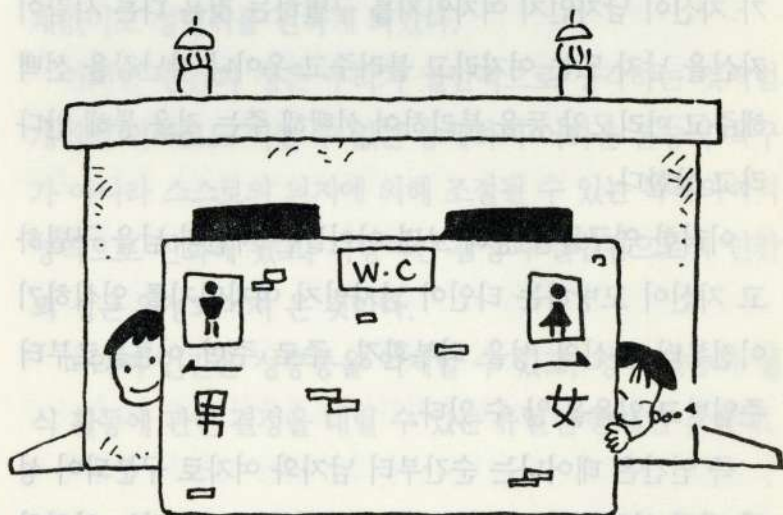
즉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성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사회화

과정을 접하게 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분리된 성으로 키워지는 것이다.

우선 보편적으로 부모들은 타고난 성에 따라 남자아이는 용감하고 씩씩한 강한 남성으로 자라나길 기대하고 여자아이는 조용하고 얌전한 여성으로 키워주길 원하며, 또한 그렇게 부추킨다.

그래서 장난감을 사줄 때도 남아에게는 소방차, 트럭, 야구방망이, 장난감 총, 조립기구 등을 주로 사주고 여자아이에게는 인형놀이, 소꿉놀이 세트 등을 골라준다. 하다 못해 기대하는 놀이까지도 남자아이, 여자아이에게 각각 틀리다.

남자아이에게 알맞은 놀이는 전쟁놀이, 공차기, 의사놀이



라고 생각하고 여자아이는 소꿉놀이, 고무줄하기, 선생님놀이 등을 하고 놀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이의 옷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분홍색은 딸에게 파랑색은 아들에게 입혀주고 있다. 색에 있어서조차도 성을 구별하는 이러한 사고는 아이의 장래직업에 대한 기대에 있어 아들에게는 의사, 정치가, 외교관, 법관 등을 기대하며 딸에게는 일반적으로 예능인, 교사, 현모양처 등을 기대하는 차이를 낳게 된다.

이러한 성에 대한 이중적인 요구와 기대를 통해 남자아이는 어릴적부터 자신의 성에 대한 긍정성과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된다. 남성성에 대한 자긍심은 남성에게 자신감과 진취성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을 무시·비하하거나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 더 나아가 여성에게 남성성기를 무기로 휘두르는 광폭한 남성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부추겨지는 과장된 남성성의 사회화와는 달리 여성은 위축되고 열등화되는 성의 사회화 경로를 겪게 된다. 이미 출산의 순간부터 남아는 환호와 자랑으로, 여아는 한숨과 걱정으로, 타고난 성에 대한 차별적 평가를 받게 된다.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어른들은 남아의 경우에는 백일이나 돌 때 으레 고추를 내놓고 사진을 찍는 등 은근히 남아의 성기를

자랑하고 부추켜 주지만 반면 여아는 아무리 더워도 팬티를 벗겨 놓지 않으며 행여나 여자아이가 아랫도리를 벗고 있으면 창피와 수모를 주어 여성의 성은 부끄럽고 가려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시킨다.

또한 여아는 커가면서 ‘여자는 몸조심하지 않으면 일평생을 그르친다’라는 순결교육을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순결교육으로는 성교육의 효과를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남자의 매매춘과 외도 등은 허용하면서 여자에게만 순결, 처녀성을 강조하는 성에 대한 이중규범은 성폭력 발생시 오히려 가해자인 남성은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지만 피해자인 여성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소외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피해자 여성의 심리적 회복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성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강제된 여성의 성적 무지는 남성의 왜곡되고 부풀린 성 지식만큼이나 건강한 이성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무지하고 움추려드는 성은 결코 성숙한 성이 아닌 것이다. 성숙한 성이란 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병든 성문화의 현실

◆ 성문화의 이중성

우리 사회에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극단적 성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그 하나는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성문화로써 여기서는 아이들은 '클 때까지는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체'라는 것이 당연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을 마치 성적인 백치아로 취급한다. 다른 하나의 문화는 스포츠 신문, 만화, 영화, 비디오, 포르노잡지, 소설 등의 세계로서 여기서의 주제는 연애 내지 성관계이다. 이것들은 어른들을 위해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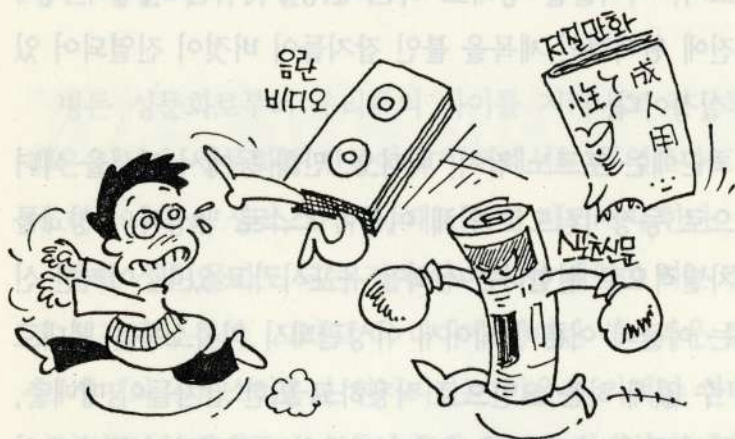
이러한 극단적인 성문화의 공존은 성은 모르면 모를수록 좋다는 부모와 학교의 요구와는 달리 아이들이 탐닉할 수 있는 성문화를 지천에 깔려있게 한다. 스포츠신문, 음란비디오를 집에 들고 오는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이 갈 수 있는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통해 아이들은 성인들의 노골적인 성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한 가판에서 직접 살 수도 있는 열려진 통로를 통해 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순진무구한 성적 백치아로 자라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순진한 어른들의

근거없는 바램일 뿐이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 관심에 부모 또는 어른들이 당황해하거나 무슨 큰 잘못이나 한 듯이 야단을 치게 되면 아이들은 곧 어른 앞에서는 성적 백치아로 행동해야만 칭찬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어른들의 시선을 피하여 나름대로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가게 되고 이것이 성적 방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성을 금기시하는 문화는 필연적으로 다른 한편에는 음란한 성에 골몰하게 되는 색골적 성문화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 성의 상업화

극단적인 성문화는 가정과 학교의 성금기적 문화로 인해 억눌린 성적 호기심,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준비하는 셈이다. 성의 상품화가 이 통로 역할을 한다. ‘파는 성’중에서 으뜸은 매매춘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호기심 충족 내지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보는 성’이 상품화하기 시작하였다. ‘보는 성’은 아직 ‘행위하는 성’을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성인으로 성장한 이들을 직접적인 성구



매자로 만들 수 있는 풍토가 된다는 문제점까지도 갖는다.

이와 같은 '보는 성' 문화는 최근 들어 국민학생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다. '90년 YMCA의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학생의 71.7%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스포츠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동부 초등교과 연구부에서 서울시내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6.8%의 학생들이 아동의 수준에 맞지 않게 성생활, 성기묘사를 아무 여과없이 과장되게 실고 있는 성교육 동화를 1~4권이상 읽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인들의 저질스러운 성행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드레곤 볼」류의 만화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문방구에서는 여자의 나체 사진에 원색적인 제목을 붙인 잡지들이 버젓이 진열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포르노 잡지, 비디오, 만화 등에서 여성을 색녀 형으로 등장시킴으로 인해 여성이 스스로 남성과의 성교를 무차별적으로 원한다는 신화를 유포시키고 있다. 이러한 신화는 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성관계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남자들이 매매춘, 성폭행 등을 심각한 반 사회적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상업적 성문화와 여기서 얻은 어설픈 지식 그리고 또래집단내의 정보 교환 등은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성적 대상화도 미화하는 남성문화를 낳게 된다.

그리고 상업적 성문화에서 묘사되는 성은 심중팔구 남성의 가학적이고 일방적인 성행위를 남자다운 성행위로 알게 하는 류가 대부분이라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성이 남성의 정상적인 성이라는 신화를 유포시키고 있다.

병든 성문화 극복을 위하여

병든 성문화로부터 우리들의 아이를 지켜내고 건강하고 밝은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가치관, 태도 등이 바뀌어야 한다.

첫째, 성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이란 성스러운 것이고 생명의 신비스러움과 한가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성은 학생들이 숨어서 몰래 알고 음담패설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만큼 진지하게 학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가 있는 일상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성교육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아이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자질이 필요하다.

둘째, 성교육의 방향이 전통적인 순결 교육 위주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즉 성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타고난 성기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강요하거나 어른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이들이 양성적 자질을 충분히 개

발할 수 있는 허용된 교육 자세만이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향적인 성인식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아이들을 ‘원초적 본능’류의 성문화로부터 떼어 놓을 길은 없다.

아이들의 성적 질문이나 성적 행동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매우 당혹스러워 한다. 이 때 이단을 치거나 황

제 2부 올바른 자녀 성교육

는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러면 성숙한 아이들과 어떻게 접근과 해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올바른 성교육의 관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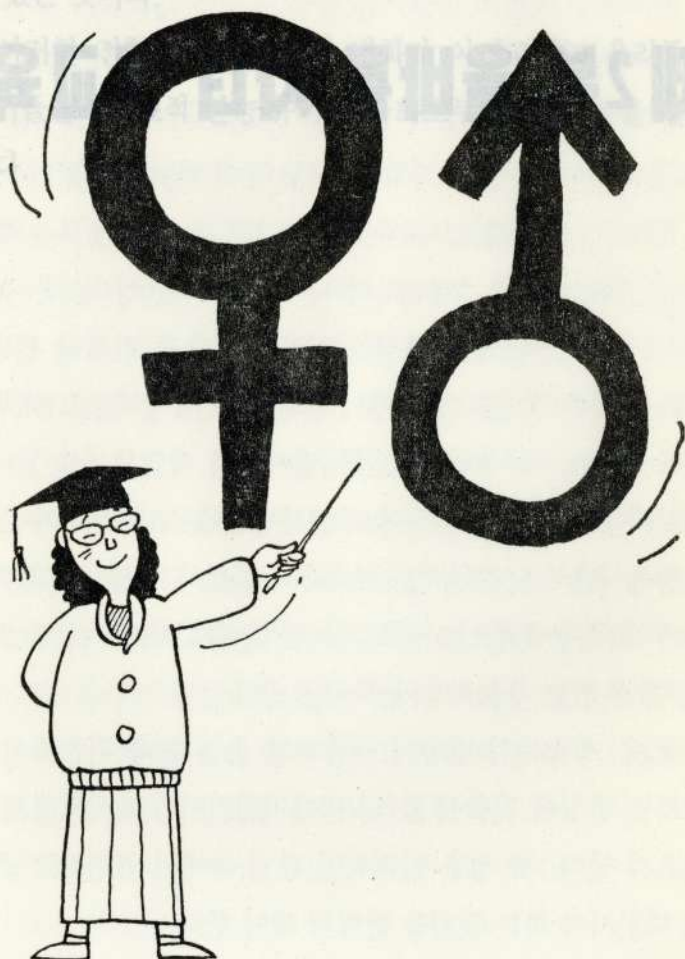
부모가 자녀야 할 때

자녀의 성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준비해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다.

- 부모는 원만한 가정 분위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자녀들에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일이 없도록 밀레옹에 특히 유의하여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성장이나 생리 변화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개인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성장 상태의 차이를 웃음과 대화로 통하여 자녀에게 이해시키고 안심하도록 도와준다.
- 성장 수준에 맞게 알아 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도한다. 지체점작으로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발할 수 있는 허용된 교육 자제만이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성적 질문이나 성적 행동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매우 당혹스러워 한다. 이 때 야단을 치거나 황당한 거짓말로써 이 당혹스러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성은 은밀한 것, 얘기해서는 안되는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키워주기 십상이다.

그러면 성에 관한 아이들의 궁금증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성교육일까?

부모가 자녀야 할 태도

자녀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우리 부모들이 견지해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다.

- 부모는 원만한 가정 분위기, 서로 존경하고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자녀들에게 보이도록 협력한다.
-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일이 없도록 말씨 등에 특히 유의하여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성장이나 생리 변화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개인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성장 상태의 빠름과 늦음에 대해서 대화를 통하여 자녀에게 이해시키고 안심하도록 도와준다.
- 성장 수준에 맞게 알아 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도한다. 지레짐작으로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지식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 세심한 관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지도하며 아이들의 반응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편견이나 야단을 치지 않아야 하며 자신있는 태도로 지도한다.

-성교육과 관계있는 그림이나 도표, 성교육 책 등을 이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으며 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성에 관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고 그들의 이해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성교육이란 결코 성에 대한 지식의 전달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건강한 성교육은 소꿉놀이 시절부터 일반 생활교육을

통해 가꾸어 가는 남녀의 애정교육이며 인격교육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교육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연령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부모와 아이와의 충분한 애정공감대 형성은 이후 청소년기의 아들, 딸들이 믿음직한 성상담자로 부모를 떠올릴 수 있게 하여 건강하게 성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유아의 성교육(1~3)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들은 성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른들은 성적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런 행동을 놀라운 것이거나 나쁜 것으로 여겨 행동을 강제로 중지시키려 한다.

그러나 출생 직후 남자아이는 음경발기를 경험하고 여자아이는 몇 시간마다 분비물로 인해 질이 축축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정상적인 아기들은 모두 이러한 성적인 경험을 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는 뜻밖의 일로 여겨지겠지만 이는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성교육은 금방 태어난 아이를 처음 안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기와의 충분한 신체접촉을 들 수 있다.

◆ 담요를 끌고 다니는 아이

갓난아기가 울 때 안아주면 울음을 그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자다가 깬 아이 또한 등을 토닥거리 주면 다시 잠이 든다. 이렇듯 아이들은 어른과의 피부접촉을 필요로 하며, 이 접촉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일반가정에서 피부접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증세로 대물애착 현상이 있다. 이것은 아이가 촉감이



부드러운 특정 물건에 특별한 애착을 보이는 현상으로 잠이 올 때, 허전할 때 그런 물건을 필요로 하며, 심한 아이는 그 물건을 놀이터까지 끌고 가기도 한다.

이 현상은 부족한 피부접촉을 나름대로 충족시키기 위한 적응 방법이므로 야단치거나 이 대용물을 빼앗거나 해서는 역효과만을 가져온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원할 때 그 애착물이 늘 곁에 있도록 배려해 주고 따뜻한 보살핌으로 충분한 피부접촉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아기에 꼭 필요한 피부접촉을 통한 애정충족은 만져주고, 씻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고 젖을 먹이고 하는 동안에도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꼬옥 안고서 젖을 먹이는 때일 것이다. 갓난아기 때는 오관 중 특히 입술 촉감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 따라서 모유가 아닌 분유를 먹일 때도 포근히 안고서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시기에 충분한 수유와 잦은 신체접촉을 받지 못해 심한 욕구불만이 쌓이면 다음단계로 발달하지 못하고 의존적, 수동적이며 매사에 요구는 하면서도 남에게 베풀 줄 모른다가 나 요구가 거절당하면 지나친 예민성을 나타내는 격렬하고, 탐욕적 성격의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린 아이를 둔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와 함께 있는 짧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애정어린 잦은 신체접촉과 다정한 말들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 아버지가 아이 돌보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쓴다면 하루종일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함께 주는 더 많은 사랑으로 아이는 밝고 따뜻한 품성으로 커갈 수 있을 것이다.

◆ 대소변을 못가리는 아이

대소변을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배설기관이 더러운 것이라는 관념을 아이가 갖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배설기관이 더럽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후 자란 다음에 성기까지도 더러운 것이라는 선입견이 생겨날 수 있다.

대개 3세까지 대변을 보는 습관이 길러지고 4세가 되면 소변 보는 습관도 좋아진다. 그러나 억지로 빨리 습관을 기르려고 해서는 안된다. 아이는 하루 중에서 대체로 정해진 시간에 대변을 봄으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배변에 가장 자연스러운 시간을 선택해서 습관을 기르는 일을 시작하도록 한다. 이 때 작은 변기나 유아용 변기를 사용하면 더욱 좋고



벗기 쉬운 팬츠를 입히는 것도 효과적이다.

웃는 얼굴로 격려해주고 배변이 잘 되면 칭찬해주는 것이 유아에게는 무엇보다도 좋다. 혹시 배변이 잘되지 않더라도 불쾌하거나 낙심한 표정을 보여서는 안되며 너무 오랫동안 앉혀두면 혐오감을 주게 되어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다.

참지 못하고 싸버렸을 때에는 “바지가 젖어 차갑겠구나”라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바지를 갈아 입혀줌으로써 아이가 죄의식이나 패배감을 갖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결코 아이를 꾸짖어서는 안된다. 젖은 바지보다 마른 바지가 더 기분 좋다는 것을 아이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 중에는 배변 후 자기의 배설물을 만지며 노는 아

이도 있다. 이것은 아이의 신경이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배설물과 그 밖의 주변 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큰 소리로 꾸짖기 보다는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 다른 놀이로 관심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성기를 찾아보는 아이

똥전의 아기들이 한 때 손가락을 빨듯이 대부분의 아기들은 똥이 지나면서 가끔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놀 때가 있다. 걷기 시작하는 이 때의 아이들은 손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만져봄으로써 이해하려 하는데,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자기의 눈, 코, 입, 배꼽을 찾아보듯이 각각 다른 부분이 주는 다른 감각을 인식하는 과정이고 아기가 자기 몸에 대한 기본 좋은 느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마들은 아기를 목욕시키거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 아기가 자기의 성기를 만지면 보통 매우 당혹스러워 하면서 그것을 즉시 저지한다. 심한 경우에는 아이의 손등을 때리거나 욕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엄마가 성을 어른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이다. 아기의 성적 느낌은 어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며 이 때의 성적 느낌은 접촉쾌감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엄마들은 아이가 “너무 일찍” 성적 쾌감에 대한 금기를 어길까 노심초사한다.

그러나 엄마의 걱정은 어른 중심의 성인식에서 파생된 것일 뿐, 실상 아이의 행동은 별 걱정할 바가 못된다. 아기가 성기를 발견했을 때 실제로 그것은 이미 성반응의 기능이 활발히 개시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아기의 성장과 발육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 성기 명칭을 배우는 아이

아이들이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무릎 등의 명칭을 배워갈 때 부모들은 매우 흐뭇해 한다. 그러나 무릎과 배꼽 사이에 도달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음경, 고환, 질, 음핵 등의 단어가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부모들은 완전히 자신이 없다. 그래서 고추니 잠지니 하여 돌려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을 입에 올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신체 명칭을 성행위와 연결시키는 어른들의 협소한 성인식 때문이지 결코 그 단어가 음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기 명칭을 분



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아이들에게 음경이나 질 등의 명칭은 눈, 코, 입과 마찬가지로 신체 명칭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성기 명칭을 가르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기는 물론이고 그 이름들을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특별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함께 알려 주도록 한다.

또한 아이들은 점차 집밖을 나서면서 성기와 성행위에 관련된 “쌍스러운” 말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동네에서 들은 이런 쌍소리를 집에 돌아와서 할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쌍스러운 말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말 자체는 별 것이 아니라도 그런 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일러준다.

아동기의 성교육(4~7)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유아적 행동에서 벗어나 제법 어린이다와진다. 자기의 옷과 씨름하여 악전고투 끝에 셔터를 뒤집어 입는 경우도 있지만 수저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크레용도 쓸줄 알게 되며 달리기도 잘 하고 세발 자전거도 탈 수 있게 된다.

자기 목소리와 자기가 떠들어대는 말을 스스로 듣는 것이 즐거운 듯 이 시기의 아동은 끊임없이 재잘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호칭하던 것에서 어느새 “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으로 “왜?”를 연발하는 것도 이때이다. 까닭없이 뽀내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거나 함부로 남을 비판하여 “그러면 안돼!”라고 말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무엇이든 칭찬받고 싶어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아동기 때는 아이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몇가지 성적 행동이 습관화 되기 전에 다른 놀이로 관심을 돌려 바로 잡아주고, 성적 호기심을 자연스러운 대화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 계속되는 아이들의 성질문

“나는 왜 고추가 없어?”

“애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애기는 어디로 나와?”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성에 관한 아이의 질문을 받아보지 않은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이 때 ‘우리 아이가 너무 조숙한 것은 아닐까?’ ‘우리 아이가 나쁜 물이 든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계속되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성에 관한 아이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거나 ‘배꼽에서 나온다’는 등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엄마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만들고, 성에 관한 아이의 질문에 당황하거나 야단을 치게 되면 도리어 이상한 호기심만을 조장하게 된다.

아이들의 질문은 흔히 어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시 질문을 아이에게 던져봄으로써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이의 질문에 답할 때는 질문할 때마다

짧고 단순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 때 대답의 내용은 똑같은 질문이라도 아이의 연령에 따라, 호기심의 정도에 따라 깊이가 달라져야 한다.

3~4세 아이가 “엄마, 아기는 어디서 와?”라고 물어오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자궁이라는 애기집에서 아기가 자란단다”라고 대답해 주면 된다. 5~6세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이전의 답변만으로는 그 아이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없다. 이 때에는 아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뱃속의 아기가 어디로 나오는가 하는 것이므로 “엄마의 다리 사이에는 질이라는 특별한 길이 있어 그곳으로 아기가 나온단다”라고 얘기해 주면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자기가 나온데를 보여달라고 조르는 아이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그 길은 아기가 태어날 때가 아니면 출구가 닫혀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라고 설명해 준다.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은 엄마의 경우에도 아기가 나오는 특별한 길을 설명해 주고 “그러나 엄마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아 의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배로 너를 낳았단다”라고 설명해주고 수술 자리를 보여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부모의 벗은 모습에 익숙치 않는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갔다가 충격을 받거나 자기와 비교를 해보고 “엄마 가슴은 왜 커?” “아빠 꺼는 큰데, 왜 내 꺼는 작아?”



“너도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 된단다!”

등의 질문을 하게 된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키가 점점 자라고 힘이 세지는 것처럼 남자는 음경이 점점 커진단다. 그리고 여자는 가슴이 크게 된단다”라고 일러주어 이런 신체적 변화는 어른이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게 해준다.

◆ 자위행위

바지춤에 손을 넣고 성기를 주물럭거리는 남자아이나 딱딱한 모서리나 방바닥에 성기를 부비며 땀을 뻘뻘 흘리는 여자아이들이 있다. 이렇듯 서너살이 되면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든 성기를 만지면 일종의 쾌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한 때 스스로 성기를 자극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위행위는 잠들기 전이나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며 깔끔스러운 성품을 지닌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일수록 자위행위에 더 심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자위행위는 몸의 건강에는 전혀 해롭지 않다. 그러나 부모의 태도 여하에 따라 아이의 감정이 불안해지고 죄의식이 형성될 수 있어 정신 건강에 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벌을 주는 것은 아이에게 죄의식만을 조장할 뿐, 별 효과가 없다. 또한 버릇을 고치려는 생각으로 ‘자꾸 만지면 고추 떨어진다.’ ‘자꾸 그러면 커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병신이 될 거야’ 등의 거짓말로 아이들을 협박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이런 거짓말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공포심과 죄의식을 갖게 하여 아이들에게 정신적 해독을 가져올 수가 있다.

“애야! 그곳은 중요한 곳이란다. 자꾸 만지면 균이 들어가 병이 나고, 그러면 아프게 되어 약을 발라야 한단다. 깨끗이 씻어줄테니 이제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로 관심을 돌려준다. 이것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때리거나 벌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자위행위가 너무 잦은 아이는 혼자 오랫동안 화장실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곧 이불 속에서 나와 자리를 정리하도록 가르쳐 아이의 생활에서 성기에 관심을 집중시킬 기회를 줄이도록 부모들이 신경쓰는 것이 필요하다.

◆ 엄마, 아빠놀이

아이들의 생활전부는 놀이이다. 놀이의 종류도 다양하고 방법도 각양각색이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하는 놀이가 가정생활을 반영시킨 엄마, 아빠놀이 즉, 성역할 놀이이다. 이 나이 때쯤 되면 부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사람

이 결혼했다는 것도 차츰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된다. 따라서 이시기에 이것을 흉내낸 소꿉장난을 즐겨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소꿉놀이가 더 진전되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올라타고 어른의 성행위를 흉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행동은 메스컴의 영향도 있지만 특히나 단칸방에서 살거나 아이를 혼자 재울 수 없어 같이 데리고 자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 잠든 줄 알았던 아이들은 잠결에 부모의 성행위를 엿보게 되고 놀이에서 이것을 흉내내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아이는 부모의 성행위를 보고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고 우는 아이도 있다. 따라서 이시기의 아이들은 점차 혼자 자는 습관을 들여 자기방으로 분가시키는 것이 부모나 아이를 위해서 좋다. 만약 방 2개 구조로 옮길 수 없는 조건이라면 방 가운데에 서랍장을 세우거나 두꺼운 커튼을 쳐서 침실을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이시기에는 자기만의 공간마련이 정서적으로도 필요한 때이므로 아이들도 부모들이 만들어준 아늑한 공간에 흡족해 할 것이다.

서너살 정도의 아이들은 성역할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소꿉장난에서 앞치마를 둘러달라고 하고 밥상을 차리기도 하며, 여자아이들도 권총이나 탱크를 가지고 놀곤

한다.

이 때 부엌놀이를 하는 남자아이에게 ‘쫓쫓쫓, 사내대장 부가 고추 떨어진다’, 혹은 여자아이에게 ‘여자답게 암전하게 놀아야지. 왈패처럼 그러는구나’하며 창피를 주면 그들은 상대방의 이성의 세계를 알기 이전에 부모가 가진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 다양한 경험을 방해받게 된다. 오히려 이 무렵의 아이에게는 다른 성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장난감과 놀이의 배려가 필요하다.

◆ 병원놀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병원놀이가 있다. 이 놀이는 자기 신체와 남의 신체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병원에 대한 무서움을 밖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조금은 친근함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놀이이다.

이 때 아이들은 신체의 각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이 정당하게 합리화되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 하는 눈치이다. 특히 바지를 내리거나 치마자락을 들추어 엉덩이에 주사를 놓고 맞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듯한데, 이것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무의식 중에 즐기려는 성적 놀이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성적인 놀이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가씨 놀이”를 들 수 있다. 옷을 잡아당겨 한쪽 어깨의 맨살을 내보이는 여자아이 뒤를 남자아이가 졸졸 따라다니거나 직접적인 성체위를 흉내내기도 한다.

아이들은 이런 놀이들을 대개 방문을 닫고 어른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한다. 주로 숨어서 하는 것은 이 놀이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성적 방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종류의 구경거리이며 발견인 것이다.

따라서 서로 진찰하고 약을 주는 정도라면 모른 척 해두



는 편이 좋으나 서로 별거벗고 성기를 만지며 논다거나, 엉덩이를 내놓고 주사를 준다고 찔러본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재미있지, 그렇지? 그러나 주사는 반드시 인형에게 놓아야지, 잘못해서 상처가 나면 큰일이야”라고 알려주어 팬티를 벗기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남이 함부로 자기 몸을 만지게 해서 안된다.”는 점을 일러주어 정도가 심한 성적 놀이를 그만 두도록 한다.

아이들 중에는 자기 성기를 주위 친구나 어른들에게 내보이고자 하는 아이도 있어 아무곳에서나 서슴없이 팬티를 벗거나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움의 감정이 생기지 않아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야단치기보다는 “성기는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다. 언제 엄마나 아빠가 아무곳에서나 옷을 벗든”하고 타일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서서 오줌누는 여자아이

이 시기의 아이들은 흔히 친구와 같이 화장실에 가고 싶

어한다. 이는 남의 몸과 대소변을 보는 방법이 자기와 같은지 어떤지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과정이며 바깥 세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증거이다.

아이들은 서로 소변보는 것을 신기하게 들여다 보거나 성기를 내놓고 자랑하고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누가 오줌 멀리 누는가 내기를 하는 때도 있다. 이러한 성적 놀이를 하는 것은 어떤 성적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기 보다는 주위의 현실을 흉내내거나 호기심에서 그것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고 노골적으로 장난을 하면 오히려 단순한 경우이고 사람의 눈을 피해가며 즐긴다면 부



모는 각별히 살펴서 다른 놀이로 흥미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자아이들 중에는 남자아이가 오줌누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우기거나 서서 누는 것을 흉내내기도 한다. 이 때에는 “남자아이는 음경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서서 소변을 보지만, 여자는 성기가 몸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른이건 아이이건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란다.”라고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를 설명해 준다.

그래도 “나도 남자애들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어”하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너에게는 애기를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자궁이 있단다. 그러나 너가 음경을 달고 있으면 이 특별한 장소를 갖을 수 없단다”라고 알려주어 여성성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 형, 언니가 되는 아이

동생볼 나이가 된 이 때의 아이들은 남의 집 작은 아기에 대한 깊은 흥미를 보인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동생 하나 낳아 달라’고 엄마를 조르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엄마 배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는 차츰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기 시작하여 태어날 아이가 걱정스러워 진다. 아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훌륭하고 귀중한 존재같아서, 자기가 아기보다 못하면 어떻하나 싶어 아이는 걱정스러워지는 것이다. 엄마 배가 점점 볼록해져서 무릎에 앉지도 못하고 엄마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동물원에 갈 계획을 취소하거나 하면 서운해지고 엄마가 아무리 설명해주어도 화가 날 뿐이다. 태어날 아기에 대한 불신감과 분노가 깊어지면 아이는 훗날에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하고 극단적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



따라서 임신한 엄마는 아이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신한 것을 알고 곧바로 아이에게 알릴 필요는 전혀 없다. 아이들은 대개 부모가 애기하기까지 엄마의 배가 볼록해진 것도 모르고 지내기 십상이다. 임신중의 엄마가 피곤하거나 몸이 불편했을 때에도 아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은 아이에게 아기가 자기 생활을 헝클어뜨리고 있다는 피해망상을 줄 위험이 있다.

그리고 아기가 가족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아이에게 이야기 해 준다. 그러나 아기 때문에 생길 매우 어려운 일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아기가 귀찮게 굴어서 화가 나는 수도 있음을 일러둔다.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아이에게 충분히 준비를 시켜두면 아이는 새로운 생활에도 흔들림없이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훈련

최근 들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 날로 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방어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그런 일을 피하는 방법을 당황하지 말고 진지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너무 친절하게 구는 사람이나 너를 만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너와 단둘이 있으려고 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이 네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도 그래야 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선물은 절대 받지 말고, 모르는 사람의 차에는 절대 타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원하지 않는데 어른이 억지로 너의 성기를 만질 때에는 분명하게 큰소리로 싫다고 얘기하거나 큰소리로 울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자기 몸의 보호와 좋은 느낌, 싫은 느낌에 대한 분명한 자기 표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이것을 알려줄 때 너무 강하게 경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너무 강하게 경고하면 아이가 자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는데 겁을 내거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신체로 애정표시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생 중 한번은 노출증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딸아이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자기 성기를 보고 놀라거나 당황해 하는 여성들을 보고 성적 쾌감을 갖기 때문에 일단 당황하지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 가라”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학동기의 성교육

학동기때는 성적 호기심이 표면상으로는 거의 자취를 감추어 성적 흥미가 일시 잠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잠재기라 하여 성적 발달이나 성적 행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때 2차 성징인 몽정이나 월경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직 어린애인데.’하는 생각만을 갖고 있다가는 자칫 성교육의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사춘기를 앞둔 이들에게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작함으로써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로 인한 충격을 줄여주고, 성적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내적 조절력의 기초를 갖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국민학교 저학년

사춘기 직전의 아이들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다니게 되면 대체로 남녀의 성차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나 성적 놀이는 줄어드는 반면 임신에 관한 흥미가 부쩍 증가한다. 이 때 부모가 적절한 답변을 안해주면 아이들은 영화나 TV의 애정장면을 떠올리며 ‘응! 키스하니까’ 또 ‘아마 끌어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보다’라는 정도로 어림 짐작하거나 고학년의 아이들은 친구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거나 백과사전을 찾아보며 심취하기도 한다.

사실 유아기 때처럼 단순한 대답으로 이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으므로 부모들은 대답하기가 몹시 난처해진다.

일단 구체적 성지식을 알고자 하는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듣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진지하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를 위하여 해부도를 보여 주거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궁의 역할과 정자, 난자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합해져서 아기가 생기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다는 임신의 원리를 이야기해 준다.

그러나 성숙한 아이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아빠 정자가 어떻게 엄마의 난자한테 가지?”라고 물으면 “정자가 난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엄마의 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빠의 음경이 꽂혔을 때 질을 통해 정

액을 보내고 이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긴다.”
라고 성교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

이 때 분위기는 진지한 것이 좋고 부모의 태도 또한 웃거나 머뭇거리는 것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성은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더 깊게 성교를 다루기보다는 뱃속의 아기에 대한 설명과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성에 관한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다가 흔히 엄마들이 잘 저지르는 실수 중의 하나는 출산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스스로 도취되어 아이를 낳을 때의 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 때 아이는 자기가 엄마를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새로 태어난 동생을 미워하게 되며 여자아이들은 “난 여자가 싫어”하면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공포심을 표현하는 등 심각한 고민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아기를 낳는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고 아프기도 하단다. 그렇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이지. 그리고 아기가 귀한걸 생각하면 아픈 걸 어느새 잊을 수 있지. 어쩌면 아파하면서 낳았기 때문에 네가 더 이쁜지도 모른단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이렇게 고통을 겪

으면서도 낱기를 위한 소중한 자녀들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성친구에 대한 지도

취학 전에는 함께 어울려 엄마, 아빠놀이를 하며 즐겁게 놀던 아이들이 국민학교 2, 3학년 경부터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따로 놀기 시작하게 된다. 이성의 친구를 무시하고 혹 이성 친구와 친하게 노는 아이를 보면 ‘연애한다’고 놀리며 자기의 놀이 집단에 끼워주려 하지 않고 실제로 이성친구를 미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양성간의 반발은 그들의 무의식 속에 서로 이성애에 대한 새로운 흥미가 생겨났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시기 때에 가장 유행하는 장난으로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의 치마를 걷어올리며 “아이스케끼”하고 소리치는 놀이가 성행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 더 발전하게 되면 방과 후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뒤를 쫓아 집에까지 따라가기도 하고 여자아이들도 특정의 남자아이를 정해 놓고 노골적으로 좋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학급에서는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등 소문이 번져 주위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하고 이로 인해



아이들간에 심각한 갈등이 오가기도 한다. 사실 이때는 우정과 연애를 구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옷을 이쁘게 입으니까’ ‘반장이니까’ ‘머리가 길어서’등 단순한 이유로 좋아하다가 아주 사소한 일로 백지로 돌아가곤 한다.

이 때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성친구에 대해 자연스러운 대화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데리고 오라고 권유도 하여 공개적으로 사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놀리는 기색없이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성친구를 인정해줌으로써 비밀리에 이성을 동경하여 이 후에 심각한 문제로 비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청년기에 이성친구를 부모에게 공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국민학교 고학년

어른으로 커가는 아이들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은 성호르몬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상의 성차를 일컫는다. 그 특징으로 여드름, 음모, 변성 등은 남녀 모두 공통으로 나타나며 여자에게는 유방의 발육과 월경, 남자에게는 몽정(사정)현상을 들 수 있다. 이 변화는 보통 국민학교 졸업을 전후하여 나타나는데 점차 그 연령이 13~14세에서 10~11세 정도로 낮아지고 있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1, 2년쯤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남자와 여자는 의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여자는 성에 대해 아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의 발달에만 관심이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남자는 성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여자의 성발달에도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남녀의 생리적 특징을 설명해 주어 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자아이들은 학교에서 여성의 생리는 배울 수 있으나 남성의 생리는 전혀 배울 수가 없고 그나마 남자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생리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남녀 생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학교 밖에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이 음란 잡지나 비디오의 과장되고 어설픈 성지식에 탐입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남녀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을 알려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2차성징에 따른 놀라움과 수줍음, 그리고 육체에는 큰 변화가 오지만 정신발달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몸과 마음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이들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미리 적절히 도와 주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

사내아이들의 2차 성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정현상이 있다. 이것은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정낭 속에 모여 있다가 더 이상 축적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꺼번에 음경을 통해 몸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남자들은 잠잘때 꿈을 꾸다가 사정하는 몽정이나 자위행위를 통해 첫 사정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사정현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는 정액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고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 고민하기도 하고, 또 꾸었던 꿈이 남에게 말하기 창피한 내용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미리 아버지가 아들의 몸을 관찰해서 음모가 나고 변성의 기미가 있으면 함께 목욕하고 온후라든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 남성의 생리적 변화를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엄마들은 남성의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들의 사정현상에 소홀하기 쉽다. 팬티나 이부자리가 더러워졌을 때 “웬일이냐?”고 다른 식구들에게 다 들리도록 큰소리로 야단을 치면 아이들은 몹시 난처해 한다. 심한 경우에는 혼자 몰래 이부자리를 빨거나 팬티를 사는 경우도 있으므로 엄마의 섬세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들은 사춘기에 들어서고 있는 아이들이 행하는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실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성인과 같은 신체 조건을 구비하게 된다. 그러나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기에는 7~8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사정충동을 자위를 통해 해소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잘못이라고 꾸짖게 되면 죄의식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바른 인간관계나 인격형성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습관적인 자위나 건강을 해치는 자위는 삼가하도록 해야 하지만 너무 억압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여자의 경우〉

2차 성장기의 여자에게도 많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유방의 발달과 월경이라 할 수 있다.

유방은 나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 바로 그 안의 유선에서 젖을 만들어내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모유로 키울 수 있게끔 한다. 유방은 월경을 시작하기 2~3년 전부터 발육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되면 “개인에 따라 그 크기나 발육시기에는 차이가 있단다. 따라서 너무 크다고, 너무 작다고 부끄러워 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단다.”하고 일러주는 것이 좋다.



초경이 시작되는 시기는 인종, 기후, 생활양식에 따라 또 개개인의 건강, 영양 등에 따라 다르나, 아이의 성숙 정도를 보아 10세 전후에 엄마가 지도하는 것이 좋다.

예비지식이 없이 갑자기 월경을 경험하게 되면 성기에 병난 것은 아닌가 싶어 몹시 놀라고 또 남에게 말하기도 창피하여 혼자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여자아이를 둔 엄마들은 미리 생리대를 준비해 주고 생리현상의 이유를 배란, 수정 등의 임신원리와 함께 상세히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여자 몸속에는 2개의 난소가 있어. 대략 4주에 한번꼴로 한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를 하나씩 내보내는데 이를 배란이라고 한단다. 배란기가 되면 자궁은 정자를 만나 수정된 난

자가 정착하기 좋도록 폭신평신했던 상태로 변한다. 이 때에 마침 남자의 정자가 들어오게 되면 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나 너처럼 아직 어려 공부도 더 해야 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란기 때에 형성된 폭신평신했던 자궁속의 이불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대로 벗겨져서 몸밖으로 나오게 된단다. 이것이 바로 월경이란단다.”

이렇듯 월경이 생명의 탄생이라는 귀중한 능력의 표시이기에 부끄러워 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몸이기 때문에 몸을 되도록 따뜻하게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과격한 육체적인 일은 가급적 조심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불행한 임신의 피해들도 알려주어 자기 몸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충동에 대한 지도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놀라운 성적 성숙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불가피하게 일

어나는 성적 충동은 청소년들을 번민에 빠지게 하고 더 나아가 성적 비행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왕성하게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성충동을 어떻게 절제하고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먼저 남자와 여자의 성적 충동이 너무 다르며 그로 인한 행위의 양태 또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남녀가 데이트를 할 경우 여자는 상대와의 대화, 분위기 등에 만족하는데 반해 남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성적충동을 느끼는 수가 많고, 성폭력의 경우에도 남자는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반면 여자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인생을 비판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남녀 모두에게 강조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자신의 성적충동을 자제하지 못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엄청난 결과와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얼마나 중벌로 처벌되는지를 알려주어 성적충동의 자제력과 조심성을 키워주고 여성은 강제로 욕보일 대상이 아니라 대등한 인격체임을 강조하여 올바른 여성관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여자에게는 남자를 대할 때 지나치게 순진하고 온정적으로만 대해서는 안된다는 점, 특히 남성과 단둘이 있을 때 남성은 대화이상의 손놀림, 입놀림 또는 상상을 통해서도 큰



성적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위기상황에 부딪혔을 때 위기를 현명하게 벗어나는 방법, 예를 들어 철저한 정신력으로 강력하게 대항하거나, 큰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순간적인 재치로 요령있게 모면하는 방법 등을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똑같이 순결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에 하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딛고 일어서는 강인한 정신력을 교육시켜야 한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여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성관계가 아니라 남성의 음경에 질이 구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순결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등을 교육시켜 불의의 사건으로 여성이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시기의 성교육은 성적충동을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긴장 상태로 완화해 두는데 있기 때문에 운동, 오락, 각종 스포츠를 통하여 육체적 긴장을 풀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보다 일찍 학습된 절제나 승화는 청소년들이 성적 좌절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 자녀성교육을 위하여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개방된 여러 매체의 영향등으로 요즘 아이들의 성적 발달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교육의 문제가 날로 어려워져서 부모들의 걱정이 태산같은데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의 성장이 빨라지면서 성에 일찍 눈 뜨는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문제까지 겹쳐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로 하여금 과거의 부모들처럼 자녀

지도에 안이하게 임하는 태도를 더이상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성교육이란 말 자체에 대한 저항감을 갖거나, 실제로 성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답변을 해야할 지를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혹은 귀찮은 것으로 생각되어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녀 성교육이란 생활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결코 생소한 것이거나 어려운 과제만은 아니다. 자녀와의 일상대화 등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화제를 자연스럽게 성문제로 접근시켜 얼마든지 성교육의 기회로 만들 수 있으며, 실제 자녀와의 대화내용에 있어서도 성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일단 자녀성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어려운 문제로만 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애정어린 눈빛과 정성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일깨워주는 부모의 자신있고 여유있는 태도는 가정성교육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어색하여 우물쭈물하거나 당황하며 야단을 치는 부모의 태도나 청교도적 사고로 지나치게 권위과 위엄을 갖추고 훈시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성교육을 할 때는 성생리에 대한 지식만을 가르치는데서 그칠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상호조화에 관한 것과 남녀의 성 도덕적, 윤리적 관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성에 대한 책임성 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어른들이 오해하고 있듯 성교육은 성기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한차원 높은 인간의 성 심리적 현상에 초점을 맞춘 사회심리교육이며 인간교육이기 때문에 올바른 심성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교육의 중요한 한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가정성교육은 성문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의 하나라도 당하게 될지도 모를 성문제로 인한 불행스런 사고를 사전에 일러주고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처신법 등에 대한 상식을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사실 성교육의 중요한 한부분이다. 그러므로 성교육은 자녀보호의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녀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성문제를 하나하나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성교육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다. 따라서 자녀성교육은 학교에만 맡길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부모의 자각이 이루어진다면 부모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건전한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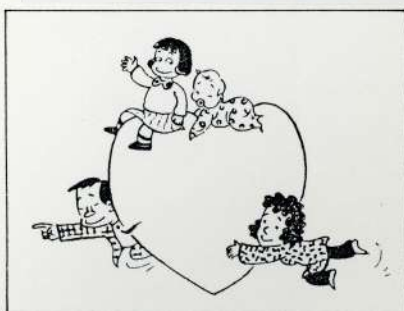
따라서 부모들은 우리아이들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과 아이 사랑을 몸소 실천한다는 자신감을 갖고 자녀성교육에 임해야 하리라 본다.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
 성이 기억하는 바로 이곳
 고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성평등 도서관 여성이
 록하고 여성이 기억하는 여
 을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하
 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
 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손영주

1965년 삼진강 유역 하동에서
 출생하여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서울여성노동자에서
 활동중이며, 「사랑의 품앗이, 그 왜곡된 성」
 「여성취업과 턱이운동」 「남성연구」 등을
 공동집필하였다.

